

## 1999 中小企業 育成施策

장흥순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장

### I. 우리 經濟의 現況

#### 1. 金融 動向

(1) 지난해 말부터 시중금리가 인하되고, 경기 회복 전망으로 주식 및 외환시장이 안정을 회복하여 가용외환보유액이 550억불 규모에 도달

○ 환율

: (97. 12. 23) 1,995원/\$ → (98. 12말) 1,204원/\$ → (99. 6. 16) 1,164원/\$

○ 종합주가지수

: (97. 12) 390 → (98. 12) 525 → (99. 6. 16) 829

○ 가용외환보유액(억불)

: (97말) 88.7 → (98말) 485.1 → (99. 5말) 550

(2) 어음부도율도 0.06%(99.6)를 기록하여 96.6월(0.10%)이후 최저 수준

○ 부도업체수(개)

: (97. 2) 1,060 → (98. 2) 3,377 → (99.) 556

○ 어음부도율(%)

: (97. 12) 1.49 → (98. 2) 0.83 → (99. 6) 0.06

(3) 회사채 유통수익율은 8(% )내외로 안정되고, 실질대출금리도 9~10(% )대로 하락하여 신용경색 현상은 다소 완화

○ 회사채 유통수익율(%)

: (97) 13.4 → (98. 1/4) 20.7 → (99. 6. 16) 8.04

○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

: (98. 3) 16.5 → (98. 9) 14.1 → (99. 6) 10.9

#### 2. 實物 動向

(1) 최근 실물경기지표는 지난해 4/4분기부터 감소세가 둔화되어 산업생산은 작년말 이후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기계수주 등이 작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실물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생산증가율(%)

: (98. 3/4) Δ9.5 → (98. 12) 4.8 → (99. 1) 14.7

○ 국내기계수주증가율(%)

: (98. 3/4) Δ22.2 → (98. 12) 0.9 → (99. 1) 39.6

○ 제조업평균가동율(%)

: (98. 3/4) 66.7 → (98. 12) 70.9 → (99. 1) 69.2

(2) 실업자(99. 1)는 176만여명으로 실업율이 8.5% 수준으로 상승

○ 실업율(%)

: (98. 3) 6.5 → (98. 6) 7.0 → (98. 9) 7.3 → (98. 12) 7.9 → (99. 1) 8.5

(3) 반면, 무역수지는 지난해 390억불의 흑자에 이어 금년 1~2월에도 25억불의 흑자 기록

〈 무역수지 동향(억불) 〉

	98	99.1	99.2
수출	1,323(Δ 2.8%)	93(3.7%)	94(Δ 16.0%)
수입	933(Δ 35.5%)	86(15.4%)	76(Δ 3.0%)
무역수지	390	7	18

### II. 中小企業의 重要性 및 비전

#### 1. 中小企業의 國民經濟的 重要性

(1)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比重이 增加하는 추세

○ 업체수의 99.1%, 종업원의 74.4%를 점유(97)

	전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사업체수(천개)	2,697	2,673	99.1
종업원수(백만명)	11.1	8.3	74.4

(2) 특히,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輸出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42.6%를 담당)

(3) 또한,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중소기업 수출비중(%)

: (95) 39.6 → (96, 97) 41.8 → (98) 42.6

(4)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수준이나, 主要 競爭國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

〈 주요국의 중소기업 현황(95) 〉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업체수(천개)	95(99.0)	384(99.0)	154(98.2)
고용(천명)	2,034(68.9)	7,422(71.9)	2,045(83.5)

\* 註 : ( )는 제조업 전체에 대한 5인이상 중소기업 비중(%)

2. 21세기 中小企業의 비전

(1) 산업 構造調整 주도

-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왜곡된 산업구조를 치유

60~70년대	80년대	21세기
노동집약적 경공업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기술지식집약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조자가 아니라 대기를 리드하는 역할 수행

(2) 技術開發의 원천

- 전문 분야별 기술개발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주도
-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창업 확대로 첨단기술개발의 주역 담당

(3) 雇傭擴大의 주역

- 정보화·지식기반 사회의 고용은 중소기업이 주도
  - 다운사이징 (downsizing), 아웃소싱 (outsourcing) 보편화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중소기업이 고용 확대를 주도

< 미국의 고용증가율(연평균) >

	88~92년	91~95년
벤처기업	19.0%	34.0%
500대 대기업	△0.8%	△4.0%

(4) 지속적 輸出擴大의 침범

- 우리 경제구조상 앞으로는 완제품보다 부품 수출이 유리
-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첨단 제품이 수출을 주도

(5) 소득계층간 및 지역간 均衡發展의 견인차

- 중소기업의 발전은 중산층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소득분배에 기여
- 중소기업 위주의 지방산업 육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가능
- 중소기업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시 유망협력 분야

(6)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

- 21세기는 대규모 설비와 조직보다는 창의와 지식이 중요
- 규모의 경제」 이익 상실로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는 경제발전에 한계
- 시장 수요의 개성화 및 다양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유리
  - 유연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신속히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

III. 中小企業 育成施策

1. 中小企業의 技術 및 品質競爭力 強化 支援

(1) 技術力 向上 基盤構築

- 신지식·기술 패러다임에 적합한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술유통시스템(기술거래소 설립 등)을 구축
- 「지식기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세부지원계획」등을 수립·시행하고, 중진공 연수원에 「지식경영」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

(2) 中小企業의 技術競爭力 強化 支援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KOSBIR)을 강화하여 기술지원 비율을 확대(98: R&D예산의 3% → 99: 4%)하고, 각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계획 통합 공고
- 기술혁신개발(400억원)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100개, 130억원)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 생기원 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추진(300업체)하고, 국가보유 고성능·초정밀 시험·연구시설의 중소기업 이용 개방
-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을 확대하고(GQ(148→250품목), EM(485→615 품목), GR(35→70품목)), 100PPM 품질혁신사업을 적극 전개

2. 中小企業의 輸出力量 強化 支援

(1) 中小企業의 海外마케팅 支援

- 업종별조합 등 동종품목 중심으로 박람회등에 중소기업 무역·투자촉진단 파견(25회)을 확대하고, 현지 시장개척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대행
- 현대·삼성 등 7대 종합상사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잠재 수출유망 중소기업간 시장개척 상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홈페이지를 확대하고(98: 1,400업체 → 99: 10,000업체), 상품카드로그수록 확대(98: 6,200개 → 99: 50,000개)

(2) 中小企業의 輸出競爭力 強化

- 11개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 체제 확립
- 퇴직 수출 유경험자를 중소기업에 직접 투입하여 지원하고(4,000개 업체), 수출 실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적극 추진
- UL, CE 등 해외유명인증획득 소요비용의 7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360개 업체), 생기원 등 11개 지원기관을 통해 제품시험 등 각종 절차대행

3. 中小·벤처企業의 創業支援 및 育成

(1) 中小·벤처企業의 投資財源 擴充

- 정부·민간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1,000억원 규모)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추진
-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지원책이 미흡하여 클럽 수준으로 운영(6개)되고 있는 엔젤(angel)의 조합결성을 확대하고, 엔젤투자여건을 조성
- NT·EM 등 인증업체, 벤처기업 전국대회수상업체 등 우량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KOSDAQ) 시장 등록을 적극 유치
- Venture-Net에 「인터넷 주식시장」을 개설·운영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투자 자금의 조기회수 지원

(2) 中小·벤처企業의 創業活性化

- 창업자금 지원대상의 확대, 공장설립의 간소화, 창업투자회사의 기능 확대 추진 등을 위해 「창업지원법」 전면 개정 추진(상반기)
- 고급인력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자금 등 지원을 확대
- 「벤처기업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의 「경영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법률 및 경영자문 추진

(3) 中小·벤처企業 立地與件 改善

- 서울양재, 포이지역 등 자연발생적 벤처기업 집적지역에 대해 자금·세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벤처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대전 제4공단내에 시범적으로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벤처기업·벤처캐피탈 등이 종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벤처집적시설 지정을 확대(98: 23개소 → 99: 50개소)
- 창업보육센터의 건립을 확대(98: 30개 → 99: 65개)하고 운영을 효율화
  - 창업보육센터 현황 :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센터, S/W 지원센터, 기술창업보육센터 등 132개소(총 631개사 입주)

4.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支援

(1) 中小企業의 可用資金 供給 擴大 및 效率化

- 중소기업 지원예산 2조 4,492억원의 76%를 1/4분기 중 조기 배정 추진
  - 현재(99.3.15) 1조 6,903억원(69%) 배정 완료
-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순수 운전자금 용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신설·지원(상반기 4,000억원, 하반기 3,000억원)
  -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경영 외적인 요인에 따른 긴급 운전자금으로 구분
- 중진공을 통해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 대출하고(98: 5,300억원 → 99:9,700억

원), 신용대출 비율을 확대

(2) 中小企業 資金調達體系의 多樣化

-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연합채권 발행을 확대하여 자금조달체계를 다양화
- 중진공과 해외자본 공동으로 「기업개선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

(3) 信用保證의 實效性 提高 및 連鎖不渡 防止 支援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1조 2,000억원)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신용을 보증하고, 정책자금의 보증한도를 확대(매출액의 1/3 → 1/2)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 어음보험의 인수를 확대(98: 7,000개사 → 99: 10,000개사)하고, 신용평가기법의 도입 등 어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
-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확대하고(98: 3,293억원 → 99: 3,551억원)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의 탄력운용 및 불건전 채권 회수 강화

(4) 中小企業 構造改善 促進 및 經營能力 向上支援

-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M&A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전략적 제휴 등 정보지원
- 「컨설팅 산업발전방안」 수립하고, 컨설팅 전문인력의 양성을 확대하며, 컨설팅 전문인력 Pool 확대(98: 3,200명 → 99: 3,800명)

(5) 中小企業의 人力支援 및 失業對策 推進

-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수출중소기업·벤처기업을 우대하고, 휴·폐업 기업소속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알선하며,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 퇴직 고급기술인력 지원 및 Y2K 문제해결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확대하여(98:230억원 → 99: 615억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난 완화 동시 추진
  - 고용효과 : 연인원 213만명

(6) 中小企業에 대한 內需擴大 支援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98: 28.5조원 → 99: 30조원 규모)하고 1/4분기 중 35% 이상을 집행하도록 유도
- 「국내·외 조달정보망」을 구축(99.1)·운영하여 조달청 등 69개 공공기관과 외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입찰정보 제공

(7) 中小企業 전자상거래 활성화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지원코너」를 개설하여 정보제공 체제구축
- 전자상거래 쇼핑몰 시험운영(99. 4월부터 6개월간)

## 5. 小規模 企業에 대한 支援 強化

- (1) 소기업 지원 자금의 별도 운영 (98: 2,481억원 → 99: 2,600억원)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유도
- (2) 전국 주요도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14개소)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경영상담 및 창업 자금 지원 (지원규모 : 1천억원)
- (3)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99: 7,218억원) 통해 지방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업체 및 지역특화업체 등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
  - 기설립된 8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 출연 (400억원) 하고, 서울 등 4개 지역에 대한 조합 설립을 유도
-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 여성창업상담실, 경영연수, 여성기업실태조사, 여성기업우수상품전시회 개최 등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지원을 포함하는 여성기업 육성시책 수립·추진

## IV. 結 論

1. 세계는 더 이상 중소기업을 “다수의 약자”로 보지 않고 “활력있는 다수(vital majority)”로 보기 시작
  - 중소기업을 기술혁신의 담당자, 고용기회의 제공자, 대기업을 지탱하는 협력자, 경제 민주화의 담당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2. “새로운 천년(New Millennium)”의 시작을 목전에 두고, 세계 각국이 21세기를 맞이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지금
  - 기술과 지식이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면서 기업경영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긴급하다는 인식필요
3. 따라서 중소기업도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1세기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